

지구화 시대 지역연구 지식의 재구성: 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미덕 |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1990년대 이후 지구화 논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간으로서의 지역 개념과 아시아 지역연구에 대한 문제가 (재)부상하게 되었다. 일국의 특수성과 자세한 기술이 특징인 지역연구의 쇠퇴가 논의되는 한편, 지역성에 기반을 둔 지식생산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여성학계에서도 아시아 여성에 대한 수동적인 재현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역성, 장소, 토착성 등을 강조한 지식생산이 잇따랐다. 이 글은 서구의 지식생산 과정에서 지구화와 지역연구를 둘러싼 논쟁과 아시아 국가 및 아시아 여성의 재현의 정치를 점검하고 있다. 지구화의 보편주의에 맞서는 지역성, 특수성의 논리가 지니고 있는 본질주의적 경향과 이 논리의 기저에 작용하고 있는 서구와 비서구, 지구와 지역의 이분법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서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구체성과 실재를 강조하는 사실주의 분석(realistic analysis)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연구는 아래로부터의 물리적·문화적 지구화를 실천하는 아시아인의 다층적 면모(정치경제적 행위성)를 살피는 작업임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어: 지역연구, 지구화, 아시아, 아시아 여성, 사실주의 분석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005-J02501).

I. 서론: 문제제기

이 글의 목적은 서구 사회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화와 지역연구를 둘러싼 논쟁과 아시아 국가 및 아시아 여성에 대한 재현의 정치를 점검하는 것이다. 지구화의 보편주의에 맞서는 지역성과 지역국가의 특수성의 논리가 지니고 있는 본질주의적 경향, 그리고 이 논리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서구와 비서구, 지구와 지역의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아시아 국가와 여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서 사실주의 분석(realistic analysis)을 논하고자 한다.

탈식민주의 연구자들과 제3세계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서구사회에서 생산되는 비서구 사회에 대한 지식의 특성을, 서구 정체(polity)와 역사를 기준으로 하여 제3세계 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적 보편주의, 역사적 특수성이 사라진 추상적인 이론화, 제3세계 여성의 빼앗긴 행위성으로 각각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Mohanty, 1988; Spivak, 1999).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서구의 학계에서 아시아 정치 현상 및 국가에 대한 묘사는 정태적이며, 제3세계 여성을 가부장적 국가 폭력의 수동적인 희생자로만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식형태는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비서구 사회를 왜곡하면서 제1세계의 특권적인 지식 패러다임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탈식민주의 연구자들은 서구의 패러다임과 시각을 탈피한 새로운 역사쓰기를 주창하였고(Chakrabarty, 2000), 제3세계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기존 백인 중산계급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제3세계 여성을 주체성이 없는 희생자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질서에 공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Mohanty, 1988; 1991).

이러한 지적 흐름은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지구화 논의의 발전에 따른 지역연구 논쟁 및 로컬리티(locality) 연구의 부흥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국가의 구체적인 특성을 설명하려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여성학계에서는 글로벌

페미니즘이 가정하고 있는 지구적 자매애가 여성들 간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Nagar and Swarr, 2009), 토착과 지역을 강조한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런데 토착과 특정 지역에 대한 강조는 또다시 상대주의적 지식으로서 보편화될 수 없다는 반박에 직면하였고, 내용 면에서는 국지주의적(parochialism)·본질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Chong, 2007).

그렇다면, 한편에서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평면적이고 보편주의적 서술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에 대응하여 본질주의적 지식이 생산되는 양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에스코바(Escobar)는 그의 논문, “장소, 자연, 그리고 문화”(2003)에서 “지구적인 것은 공간, 자본, 역사, 주체성과 동일시되고 지역적인 것은 장소, 노동, 전통과 동일시된다”고 논하면서 “이 지역을 자연화, 여성화, 본질화하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글로컬(glocal; 지구지역적)이라는 언어 조합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연구자들은 양자의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두 대상의 주체적 대결과 분리에서 기인한 양적·절충적 결합이 아니라, 양자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질적인 결합’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경계, 재현의 정치,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지구화(Appadurai, 2000)’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서구 사회과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국가와 지구화간의 긴장과 정치행위자인 아시아 여성에 대한 재현을 둘러싸고 작동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적 지식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등장하는 지역특수성에 대한 강조가 지역과 지구의 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극복하고 아시아 행위자의 정치경제적 삶을 아래로부터 살피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사실주의 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아시아 지역연구와 아시아 여성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지식의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이분법 패러다임(서구와 비서구,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구조와 행위 등)을 넘어서는 지식생산의 문제를 둘러싸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왜, 어떠한 맥락에서 중요한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주의 이론에서 논의되는

사실주의 분석을 간략히 소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서구 사회과학계에서 논의되는 동아시아 연구의 내용 및 위상과 동아시아 내부에서 논의되는 아시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연구는 그 내용과 형태가 다르다. 이는 독자, 생산자 및 지식형성의 내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서구 사회과학계에서 생산되는 지역연구와 제3세계 여성을 다루는 지식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었음을 밝혀 둔다.

II. 논쟁과 담론들

1. 지역연구에 대한 논의

역사적으로 사회과학계에서 지역연구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지식생산의 측면에서 방법론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있다. 좁게는 연구대상 국가의 규모에서부터, 인식론적 차원에서 과연 지역연구가 보편적인 지식을 생산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Sil, 2009; 이성형 외, 2005). 다른 하나는 보다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논의로서, 지구화와 지역국가의 관계를 둘러싼 긴장을 다루는 논의들이 있다. 이 두 가지 논쟁은 엄격하게 구별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연구의 대상, 방법과 특징을 설명하는 데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지역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일국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와 일반화를 추구하는 연구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즉 여러 국가에 대한 비교와 특성 연구를 통해 일반화를 꾀하는 연구자들은, 일국의 정제와 사회를 연구하는 지역연구가 일반화와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의 근거는 사실 지역연구 개념 정의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함의된 지역연구의 개념은 특정 국가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자세한 서술을 의미하며, (방법론의 면

에서)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는 연구이다(King, 2005: 2). 따라서 정치학 내의 비교정치 분과에서는 지역연구가 단일한 국가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거나, 지구화 시대 일국만의 정체 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연구의 전통적 연구방법인 맥락의 강조와 자세한 서술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논의의 흐름은, 지구화가 가속됨에 따라 초래되는 지역국가 연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지구화는 ‘동질화’와 ‘수렴(convergence)’을 양산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지역의 내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지역연구는 타당하지 않다는”(Katzenstein, 2001)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연구는 “지구화되는 세계에서 구태의연하고 자민족중심적, 국지적이며,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고 특별한 문화 및 언어권을 정주한다(chart). 결국 지역연구는 지구적 세계에 경계를 긋는다는 점에서 본질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이라는 것이다(King, 2005: 2).

첫 번째 논의와 관련된 ‘과학적 설명(scientific explanation)’과 ‘해석적 설명(interpretive explanation)’의 대립은 사회과학의 오랜 지적 전통으로(Rudolph, 2005b), 인과적 설명을 통해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는 과학적 설명이 주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연구자들이 취하는 해석적 설명은 자세한 서술과 맥락을 강조하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기존 과학적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Rudolph, 2005b; Szanton, 2004). 따라서 양자의 절충을 시도하는 노력도 있지만(Hall and Tarrow, 1998), 그보다 더욱 실질적인 문제는 지역연구의 연구대상의 수와 기술 방법에 따른 보편성과 과학성에 대한 논란보다는 지역국가에 대한 제반 현상들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두 번째 지구화 논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일국의 정치경제문화는 지구적 맥락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¹ 지역연구가 국지적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역연구가 일국만을 다루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통한 보편화가 어렵다는 비판

1. 이는 매우 당위적인 주장으로 들린다. 여기서는 이 상태로 두고 아래 III장에서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보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도 다음과 같은 반박이 가능하다. 우선 일국만을 연구하는 지역연구도 과거의 정태적 서술 양식을 보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등 방법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단일 국가 이상을 비교하는 교차분석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다양성도 꺾하고 있다(Sil, 2009). 일군의 학자들은 역으로, 비교라는 방법을 통한 지적 폭력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루돌프(Rudolph)는 “정치학에서든, 경제학에서든, 사회학에서든, 비교는 제3세계 국가들이 갖고 있지 않고 제1세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서, “과학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교가 타자를 경시하는 방법으로” 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Rudolph, 2005a: 10). 미첼(Mitchell)은 지구화 연술이 갖고 있는 이분법 패러다임 자체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구화와 지역이라는 이분법적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구적인 것은 보편적인 정수, 이성, 에너지이고 타자인 지역적인 것을 정태적, 반동적, 그리고 ‘문화적’인 것으로 만들기”(Mitchell, 2003: 169) 때문이며, 국지적으로 보이는 일국의 사회현상도 지극히 지구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미첼의 주장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지역연구의 중대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오리엔탈리즘의 (재)생산이다. 지식생산의 맥락에서 지역연구는 태생적으로 불균등한 세계 권력관계에서 탄생하였다(김경일, 1996). 미국에서 동아시아 연구의 출현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필요 때문이었으며, 냉전 시대에는 적을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 속에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Chong, 2007: 212). 이때 지역연구는 개념상 물리적 공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구소련, 중국,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유럽과 중부유럽 그리고 훨씬 나중에 서부 유럽을 포함하게 되었고 미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역연구가 행해진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Mirsepassi et al., 2003: 2). 따라서 혹자는 “오리엔탈리즘과 지역연구 모두 서구와 비서구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비서구 사회에서 전개된 ‘타국’에 대한 연구에서 오리엔탈 방식에 비견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는 없었다”(Kolluoglu-kirli, 2004: 109)고 통렬히 비판하기도 한다.

필자 또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역연구를 경계하고자 한다. ‘서구가

아닌 타국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의 서술과 제3세계 여성이 자국의 가부장적 국가체제에서 겪는 억압에 대한 강조로 인해, 서구학계에서 수행되는 지역연구와 아래에서 살피고 있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보편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리엔탈리즘적 지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빈번한 형태는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현상을 '문화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정치경제적 맥락이 사장되는 경우이다. 또는 '국가 단순화(State Simplification)' 혹은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로 불리는 현상으로(Chong, 2007: 213-214), 정치현상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국가 형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지탱하고 작동시키는 내적 동학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대항적 문제의식과 방법 및 구체적인 대안이 기존의 헤게모니 담론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구화에 대한 대표적인 대항담론이 서구와는 다른 본질적인 지역국가로의 회귀, 아시아 국가의 고유한 특성을 복원하려는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놀랍지 않다. 영국의 정치학자 빅터 킹(Victor T. King)은 이러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과 인류학 혹은 지리학에서 행해진다. 연구 경향은 외부 세력(유럽 세력) 개입 이전의 기원을 찾아 재구성하여 본래의 '본질주의'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적 연속성과 공통성을 찾고자 하며 사회와 정체의 토착적인 모델(indigenous models)을 추구한다. 또한 동아시아인의 행위성, 역사적 자율성, 외국 세력에 대한 능동적인 국내화(domestication)와 국지화를 재구성하려고 한다"(King, 2005: 1). 킹은 기존의 지구화에 대항하는 지역성에 대한 담론이 지구화가 어떻게 지역국가에서 (재)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질문하고 살피기보다는, 이전의 토착적 모델의 발굴과 특이성을 추적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도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면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를 비판하고 한국이라는 장소를 중시하면서도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하며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을 재구성하지는 주장도 있고(백영서, 2009: 3), 로컬리티(locality)라는 화두를 통해 구체성과 특수성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있다.² 여기서 로컬리티라는 화두가 갖는 의미는 바로 지역(국가)의 특수성과 구체성이다. 필자 역시 특수성과 구체성의 강조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로컬리티의 화두가 여전히 지구와 지역국가, 중앙과 지역의 이분법을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실제적, 경험적 연구보다는 언표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한 연구 경향이나 담론 수준의 논의 및 규범적 주장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조명래(2000) 또한 지역정치경제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지역정치경제) 연구가 사소화되고 경험주의적이고 절충주의적이며, 현상주의적이고 행위자 중심주의적이며 탈정치화와 반보편주의(anti fundamentalism)를 선호하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지역연구의 한계를 스스로 불러오고 있다”(조명래, 2000: 174). 그는 오늘날 제기되는 사회적 관계와 활동의 점증하는 복잡성, 지구화, 초국경화, 경제의 사회문화화, 자본주의의 가상화, 탈국가화 등에 근거하여 지역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거의 구조주의 지역론으로의 회귀보다는 새로운 메타 지역이론을 주장한다. 이는 “지역을 위한 지역연구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개별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추상성이 높은 지역의 보편성에 관한 설명이 함께 두루 포함되는 유연한 거대담론”(Ibid.: 188)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과정에 대한 논의로서 유연한 거대담론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지역의 구체성과 보편성을 포함하는 절충적인 결합이 아니라 양자의 질적 결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³

2. 대표적으로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진들이다(박규택, 2009; 정세룡, 2009).

3.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연구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미국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탄생하였다는 지역연구의 태생적 한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연구대상의 숫자를 비롯하여 과학적 설명의 실패 등의 방법의 문제,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정체성 자체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지역연구를 둘러싼 두 논쟁, 즉 지식생산과 관련된 방법론적 특성 및 지구화와의 긴장 관계(지역성과 지구화와의 대립적 관계, 연구대상 숫자의 문제, 이론적 일반화와 특수성의 긴장)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방법론적 민족주의 등을 통한 오리엔탈리즘적 지식생산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또한 지구화의 보편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등장한 지역국가의 특수성의 재강조 또한 서구와 비서구, 지구화와 지역성의 이분법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역연구 논의에서 예컨대 연구대상의 숫자와 국가 정체성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어떻게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는 지식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Sil, 2009). 다시 말해 필자는 기존의 지역연구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떻게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 지구적 변화 및 지역의 행위자의 삶과 사회 현상을 실재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구화가 어떻게 지역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지역의 행위자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살피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 부분은 III장에서 방법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2. 아시아 여성에 대한 재현: 지역과 장소에 기반을 둔 지식

위에서 언급한 지역연구에 대한 질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아시아 여성에 대한 재현의 정치이다. 이 부분이 오리엔탈리

등) 지역연구가 일기엔 (의도치 않은) 역설적 성과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윌러스틴, 2001). 지역연구는 미국 정치의 맥락에서 발전하였지만 제도적 수준 및 담론의 수준에서 일국 및 타국과 미국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과 이론을 생산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보편성에 대한 전복적 지식들을 생산해왔다. 식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탈식민주의 학자들과 제3세계 페미니즘을 형성한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여성주의 학자들은 지역연구자들이라 불리거나 분류되지 않지만, 일국이나 특정지역을 연구하는 지역연구의 정의를 적용해보면 그들은 여성주의 지역연구자로 불릴 수 있다. 실제로 제3세계 페미니즘 연구진들은 서구 중심주의 지식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행해왔다(Mohanty, 1991). 따라서 지역연구의 논의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글의 전제 및 주장과 같이, 지구화를 여러 수준에서 관찰하고 있는 지역국가 내 행위자의 삶, 제도의 과정을 어떻게 살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즘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지식의 장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재현과 같이, 아시아 ‘여성’에 대한 재현도 일정한 흐름이 있다. 이는 젠더라는 변수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는(disclosure)’ 방식이 대부분인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젠더 변수에 대한 무감각을 지적하기 위해 ‘희생자’로서 여성이 겪는 억압과 고통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즉 제1세계와 다른 제3세계로 구분되어 지리공간적, 식민지적 정체성과 함께 자국의 가부장적 국가제도에서 파생된 억압과 착취를 겪는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여성이라는 재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유형에 대한 비판은 주로 차이(difference)와 정체성을 화두로 삼은 제3세계 페미니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중에서 찬드라 모한티(Chandra Mohanty)의 “서구의 시선 아래: 여성주의와 식민주의 담론”(1988)은 이 문제에 대한 고전의 하나로 꼽힌다. 모한티는 이 글에서 서구 백인 중산계급의 여성주의자들이 비서구 사회의 여성 해방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여성들을 어떻게 수동적, 집단적, 종교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또한 그들이 비서구 국가와 남성들의 가부장적 특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3세계 여성들의 주체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써 제국주의 지식생산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공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녀는 이어서 제3세계 페미니즘의 과제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서구 헤게모니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에 근거한 여성주의 관심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재현을 둘러싼 이러한 논의들을 배경으로 하여 모한티의 두 번째 제안, 즉 자율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에 근거한 여성주의 관심과 전략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이러한 전략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제3세계 여성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재구성하려는 작업을 들 수 있다. 서구문화와 다른 비서구 문화의 특성과 토착 여성의 다양한 행위를 발굴하고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때 이에 대한 설명은 정치경제적 수준에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서술되고, 또한 비서구 사회의 특징을 토착 여성 주체를 통해 문화적인 현상으로만 복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지역연구 논의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본질주의적 경향

과 반사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물론 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경우도 있으며, 고유한 토착적 지식이 서구에 의해 전유되는 과정과 현실에 대한 비판 또한 유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맥락이 사장된 문화적, 종교적 특성에 대한 재강조는 지구화를 전제로 한 반사적 대응이며 비서구 국가를 물질 토대가 사장된 문화로만 환원하여 설명하는 ‘문화적 본질주의(cultural essentialism)’라는 또 다른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을 재생산하고 만다. 스피박은 이러한 경향, 즉 서구의 지적 지형에서 나타나는 “제3세계에 대한 과도한 열정”을 우려하며, 제3세계에 대한 무비판적 열광의 분위기가 과거 식민주의자와 유럽 학자들의 호기심과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Spivak, 1999: 60).

다른 한편에서 지구화의 진행과 함께 사회적 속성으로서 공간이 개념화되면서(Massey, 1994) 여성 내부에서의 다름에 대한 논의 또한 공간 개념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의 자국 내 계급과 인종에 따른 여성 내부의 차이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제1세계와 제3세계간의 긴장이 가세되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입장의 차이와 구체성을 강조하는 현장 여성주의(locational Feminism), 위치성(positionality), 토착 여성주의(indigenous feminism) 등의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현장 여성주의는 “역사적, 지형학적, 문화적, 심리적, 상상적 경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Mohanty, 1987; Kaplan, 2002: 149; Friedman 2001), “근대의 순간성(temporality)에서 탈근대의 공간성(spatiality)으로 변화를 이끌어, 변화하고 이주하는 경계의 장소에 대한 여성주의 서술을 가능하게 하였다”(Dekoven, 2001: 2)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구화가 가속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단위의 관계적(relational), 다문화적 페미니즘(Shohat, 2001)과 초국가적 페미니즘(transnational feminism) 등의 담론 또한 양산되었다(Grewal and Kaplan, 1994; Nagar and Swarr, 2009; Mendoza, 2002; Khagram and Levitt, 2008). 특히 근래 한국의 여성학계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국가적 페미니즘은, 정치, 경제적 측면의 전지구적 현상을 포착하려는 의도를 지닌 이론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조명되고 있으며(Khagram and Levitt, 2008) “지구화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2세대 물결 페미니스트들

에 의해 주창된 지구적인 것, 국제적인 것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고, 탈식민주의의 형태를 가리키기도 한다(Grewal and Kaplan, 2001; Nagar and Swarr, 2009: 4에서 재인용).⁴ 무엇보다도 이 이론은 백인 중산 계급 여성주의의 허구적 신화인 지구적 자매애, 국제적 연대 등에 대한 대항 담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측면에서 지구화 과정의 지역적 실천을 초점에 두으로써 “탈식민주의 여성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인종, 계급, 성애의 이론화”(Mendoza, 2002: 296-301)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여성학계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론들이 언급되었는데, 현장의 정치, 초국가적 페미니즘, 다문화적 페미니즘 등의 이론들은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여성의 억압은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에 근거하여 지구적인 여성 연대가 가능하다는 지구적 여성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다성(multiple voice)과 현장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상화, 2007: 40).

이와 같이 지구화 담론은 지역과 지역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낳았고, 지정학의 사회적 속성이 인식되면서 현장의 정치, 위치성의 개념 등이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지역과 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한 문제의식과 분석은 국가와 사회현상의 ‘구체적 현실과 상황’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제3세계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여, 기존의 집단적이고 수동적으로 묘사되었던 제3세계 여성의 재현이 주를 이루었던 헤게모니 여성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앞서 간략히 언급한 1990년대 이래 여성 내부의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가 화두가 되면서 “특수성과 우연성을 인정하고 다름/차이와 타자성을 존경하는 등의” 원칙(Gibson-Graham, 2003: 51-53)과 장소와 구체성에 기반을 둔 분석의 중요성은 대체로 합의에 이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의 이론적 장점을 부각시키고 지역연구와 행위자의 정치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실주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현재 여성학계에서 이 이론들이 추상적 이론으로서만

4. 그 외 ‘초국가적’이라는 표현은 다음의 연구에서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a) 초국가적인 과정으로서 이주를 이론화할 때; b) 현재의 지구화 흐름에서 국민국의 비타당성과 무효용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 c) 디아스포릭(diasporic)과 동의어로서; d) 탈식민주의의 형태를 가리킬 때이다(Grewal and Kaplan, 2001; Nagar and Swarr, 2009: 4에서 재인용).

언급된다는 점을 간략히 지적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담론 수준의 지적 유행인 듯이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초국가적 페미니즘은 1990년대 이래 여성학계에서 세계화와 지구화가 갖고 있는 불균형의 세력관계를 지양하고, 지구화 대 지역성의 이분법을 벗어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문제의식과 개념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는 드물고 초국가적 페미니즘 “언술 자체가 마치 자기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Lorenz-Meyer, 2004: 2) 통용되는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사한 맥락에서 멘도자(Mendoza)는 초국가적 페미니즘을 점검하면서, 그 이론적 공헌은 간과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초국가적 페미니즘은 인종차별, 유럽중심주의, 성차별 및 다양한 억압형태에 대한 전복에 기여하였다. (다층위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교차적 분석⁵ ... 등은 인종차별, 성차별 및 다양한 억압 형태를 비판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의도와 실제적인 결과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탈식민주의 여성주의 비판 내에서, 문화적 논쟁에 치우쳐 정치경제적 문제를 부당하게 설명하거나 혹은 이론화가 취약하기 때문이다(Mendoza, 2002: 310).

초국가적 페미니즘의 의도와 대의명분에 비해 정치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인데, 멘도자는 “초국가적 페미니즘이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는”을 상기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멘도자의 비판은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이분법에 대한 이해 또는 지구화와 국민 국가 정체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교차적 분석의 언술을 통한 가시적 현상들의 설명에 치우친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국가적 페미니즘이라는 언술이 포착하고 있는 전지구적인 현상들에 대한

5. 교차적 분석은 1990년대 미국의 흑인 여성주의 학자인 김벌리 크렌쇼(Kimberly Crenshaw)에 의해 탄생한 용어이다(Crenshaw, 1994). 이 이론은 기존의 백인 중산 계급 여성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젠더 본질주의를 비판하면서 여성의 다양한 층위의 억압의 형태는 젠더뿐만이 아니라 계급, 인종, 민족 등과 같은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교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김미덕, 2011).

문제의식과 관심 자체가 의문시될 필요는 없지만, 이를 단순 서술이 아닌 교차적 분석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의 과정과 방법의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III. 사실주의 분석과 사례연구들

앞의 두 장을 통해 지역연구와 아시아 여성의 재현에 대한 지식 및 이에 대한 대항 논리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패턴은 서구 중심주의적 지식을 비판하고, 지역의 독특성 및 아시아 여성의 고유한 문화와 행위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논리는 여전히 서구와 비서구, 전통과 근대의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비판하고자 하는 서구 중심주의의 또 다른 유형임을 지적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스피박의 표현인 (타자화된) 제3세계에 대한 과도한 열정이나 문화적 본질주의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지구화와 지역성 구분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론들이 추상적 언술로만 재생산되는 경향 또한 간략히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환적인 재생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추상적 언술이 아닌 구체성을 담보한 설명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필자는 오리엔탈리즘의 근간을 이루고 일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담론 수준에서도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서구와 비서구, 지구화와 지역성 등의 이분법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한 방법으로서 이분법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실재적 설명을 주장하는 사실주의 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서술, 설명, 내용의 차원이 아니라 ‘왜 방법의 전환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택하는 방법은 실제로 기능적인 측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문제의식, 전제, 주장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나아가 사실주의 분석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방법론적 전환의 중요성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고자 한다. 북한연구에서 1980년대 후반

부터 1990년대 말까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인식론적 논쟁’이 분분하였다. 이는 곧 내재적 접근법과 외재적 접근법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로 전개되었다. 본래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적 방법(당-국가가 사회를 규정하고 이데올로기가 사회현실을 규정하고 있다고 가정하는)과 냉전적 인식론에 기초한 접근법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외부자의 시각이 아닌 내부자의 시각에서 북한사회를 사회주의 이념에 비추어 검토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내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둘러싼 인식론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김연철은 내재적 접근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북한연구를 지배했던 전체주의적 방법에 대한 비판이라는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식론에 대한 것이었으며, “연구의 방법과 인식의 방법은 구분되어 하는데 그 이유는 추상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김연철, 2001: 20-21). 북한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의 문제, 이해와 평가의 문제가 냉전 이데올로기와 경험적 사료의 부족으로 정치적인 이슈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으며, 결국 내재적 접근법은 불필요한 “동어반복과 퇴행적인 방식으로 인해 생산적이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냉전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였다(김연철, 2001: 20). 김연철은 이러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도와 집행의 불일치, 정책형성의 사회적 맥락 등을 살피는 아래로부터의 시각, 경험적 시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방법론적 전환을 시도하여, 산업화와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서술을 벗어난 거의 최초의 경험적 분석이자 연구 ‘방법’이 전제된 북한사회에 대한 분석이라 평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여성에 대한 지식생산에 대한 논의에서 북한연구자 김연철의 주장과 방법 및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연철은 우선 인식론과 방법을 분리하였고 실사구시의 경험적인 연구방법을 주장하여 그동안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전체주의적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식민의 새로운 역사쓰기, 즉 아시아 지역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본질화되지 않은 구체성을 확보하고 행위자들의 주체성이 지역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

보다도 서구를 원형 및 보편으로 가정한 논의와 문제의식을 재생산하지 않고 또한 반사적인 대응으로서 내재적 접근을 도출하는 이분법적 가정을 넘어서기 위해, 양자의 관계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실주의적, 실재적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사실주의 분석과 방법에 대한 논의에서 ‘사실’에 대한 개념 논쟁과 다양한 분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사용의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⁶ 이 글에서 사실주의 분석은 지식의 권력적 속성 및 보편화된 이분법의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구체성을 담보하여 “특별한 장소와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구화의 경제적 지리학”(Fernandes, 2010: 266)을 제공하는 분석으로 제한하여 사용한다. 지구화 담론의 보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⁷을 제시하고 있는 정치학자 루돌프(Rudolph, 2005a)의 언술을 통해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이분법이 해체되고 구체성이 확보되는 인식의 기반을 살펴보았다.

-
6. 대표적으로 로이 바스카(Roy Bhaskar)의 비판적 실재론,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 앞에서 언급하였던 현장 여성주의, 초국가적 페미니즘 등을 들 수 있다. 바스카에 의해 제창된 비판적 실재론은 철학 논쟁에서 경험론과 관념론을 비판하고 실재를 복원/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며(바스카, 2007) 이론론(이론-경험, 추상-구체, 필연-우연)을 비판하고 있다(박규택, 2009). 넓은 의미로 사실주의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적 점검을 한 박규택(2009)은, 이 로컬리티 연구의 두 이론적 근거의 하나로서, 구조화론(구조와 행위가 상호작용하는 측면에서 사회를 설명하려는 이론)과 함께 이 실재론을 들고 있다. “실재론에 따르면 모든 사회활동은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며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구조의 재생산은 활동 자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구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나 가로질러 일어나거나 확산된다. 사회적 산물로서의 사회적 구조는 사회활동에 의존한다. 사회적 구조가 재생산되는 범위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 ... 실재론은 특정 장소에 다양한 실체들의 일반적인 힘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장소의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박규택, 2009: 128).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은 바로 아래 주를 참조.
7. 상황적 지식은 미국의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가 제시한 이론으로 본래 이 개념은, ‘객관적’·‘과학적’ 지식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지식생산의 구체성과 권력적 속성을 상기하고자 한 개념이다. 이에 대한 해러웨이의 언급을 인용하면, “객관성의 신화는 집단적, 역사적 주체성과 행위성과 진리가 ‘체현된(embodied)’ 설명이라는 자각을 위협한다. 여성주의 객관성은 매우 간단히 말해 상황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Haraway, 1988: 578, 581). 그는 시각(vision)의 특수성(particularity)과 체현(embodiment)을 환기시킨다(Ibid.: 582). 현장 여성주의의 핵심 주장과 근거 또한 상황적 지식에서 파생되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상황적 지식은 시간, 장소, 정황을 인식하고 개인과 그들의 능력이 자신에 의해 규정됨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선형적(prior) 가정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으로부터 진행되고 비교일반화(comparative generalization)를 향해 작동하는 것이다. 상황적 지식의 이론 구축은 지역적 지식과 실천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나오는 이론은 위로부터 구축된 이론과는 다른 미래를 만든다(Rudolph, 2005: 12).

이 글에서 루돌프는 위로부터 구축된 이론을 ‘범주의 제국주의(imperialism of categories)’라 칭하고 이를 경계하고 있다. 이는 구체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역과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의식, 가설, 설명, 이론의 순서가 아니라, 서구의 권위자나 경험에 의한 이론을 설정한 후 지역 현실의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현장’, ‘지식의 상황성’, ‘아래로부터의 구체성’ 등 사실주의 분석을 가정하고 있는 언술들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지구와 지역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행위자의 행동양식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물질적 수준의 실재성(actuality)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양측 관계의 복잡함과 모순적인 속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언술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사례연구들을 통해 이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로 지구적 도시인 방콕을 배경으로 한 인류학자 아라 윌슨(Ara Wilson)의 연구 “방콕의 친밀한 경제들”(2004)과 인도의 전설적인 여성 운동가인 풀란 데비(Phoolan Devi)의 영화와 자서전을 분석한 정치학자 릴라 페르난데스(Leela Fernandes)의 “밴디트 퀸 읽기”(1999)를 소개하고자 한다.⁸ 윌슨의 문제의식은 경제,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지구화를 방콕인들이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가,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질적인 혼종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등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종적 삶을 통해 어떻게 근대적 경제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이론적 문제

8. 필자의 해석을 제외한 설명 및 요약은 모두 이들의 글에서 나온 것이다. 몇 구절을 제외하고 인용 페이지를 일일이 적지 않았다.

를 다루고 있다. 페르난데스의 질문은 서구의 지적 지형에서 지역국가의 가부장적 폭력의 담지자인 아시아 여성에 대한 지식이 탈국가적 지식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읽히며, 여성의 행위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등이다. 이론의 측면에서 월슨의 연구는 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지구적인 것, 지역적인 것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있으며, 페르난데스의 글은 제3세계 여성의 재현과 사실의 구분, 물질과 담론의 이분법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월슨의 저서는 인터뷰, 현장조사, 참여관찰 등을 통해 방콕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지식을 확보하였다는 방법론적 장점을 갖고 있다. 그녀의 비판 지점과 문제의식은 기존 인류학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순히 아래로부터의 지구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의거하여 방콕인들의 삶을 기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구화, 자본주의,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혹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해가는 방콕인들의 다양한 삶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연구와 비교해볼 때 이 주제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장 연구의 장점, 기술을 넘어선 이론적 성찰(경제와 자본주의의 재구성,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간행위자의 정체성 문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아시아 국가와 아시아인들에 대한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I장에서 언급한, 방법론적 민족주의 문제를 탈피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지적 긴장인 구조 대 행위자의 이분법을 상쇄시킴으로써 지구화가 투영된 행위자들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삶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특정 상업지구들(백화점, 관광 성매매를 위한 고고바(go-go bar), 대중적인 쇼핑몰, 텔레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사무실, 직접 판매 등의 경제장소)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경제이론에서 친밀함(성애, 인종, 계급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체화된 사회적, 문화적 영역)을 사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공식 경제(formal economy)와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그녀가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의 ‘친밀적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비판하고자 하는 이론적 측면은 첫째,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다른 경제 형태들(마을공동체, 친족가문, 도덕 경제들)과 얽혀있다는 점, 둘째, 이러한 경제적 속성으로 인해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등이 지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즉 “인종, 젠더, 친족과 같은 사회적 의미와 관계들이 근대 초국가적 자본주의

제도의 표피 속에서 무관하게 보이도록 변화하였지만, 친밀적 정체성과 관계들은 시장경제의 근대화 작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Wilson, 2004: 9)는 것이다.

월슨의 연구에서 친밀성, 경제, 지구적 도시 방콕 등이 중심어이다. 앞서 간략히 설명한 것처럼 친밀함이란 예를 들어, 여성이라는 사회적 정체성과 친족 등의 사회적 관계, 인종간의 얽힘 등을 표현하는 ‘비경제적 요소’를 뜻한다. 경제 시스템이 친밀성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중국계 타이인 친족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 시나와트라(Shinawatra; 타이에서 유명한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Thanksin Shinawatra의 성이다)와 이 기업의 계열사 중 하나인 케이블 회사 IBC, 이곳에서 일하는 지식노동자의 정체성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시나와트라는, 정부와 기업의 결탁, 지구화, 근대적 경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친족 기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었으며 지구화 전개에 따라 정부가 국가경제 성장을 기업에 일임함으로써 타이의 기술적인 하부구조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휴대폰, 무선호출기, 컴퓨터 본체가 주력 생산 상품으로 지구적 문화와 기술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케이블 텔레비전 IBC는 타이에 지구문화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그녀는 이 예를 통해, 지구화, 초국가주의라는 용어가 상징하고 있는 경계 없는 세계, 단일하고 서구화된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실체와 경계가 없는 지구화가 아니라 훨씬 더 지역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시나와트라는 “기술, 도시 소비문화, 지구 시장의 성장, 지구적 공장, 그리고 국가기업 관계의 재형성”을 구현한 지구화의 상징이 되었다(Wilson, 2004: 137). 그녀는 또한 지구적 이동을 통해 서구문화에 익숙한 유동적 시민으로서 IBC 직원들이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고, 지구화와 지역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IBC에서 지식노동자로 일하는 콕(Kop)이라는 여성과 위트(Wit)라는 남성의 예를 통해, 지구화 경험(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교육받음)이 어떻게 타이에서의 경력, 경제, 사회적 자원을 구성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담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타이에서 계급, 지위, 젠더의 맥락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지구적 문화가 어떻게 타이의 지역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지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윌슨은 그 대표적인 예로 성애(sexuality)의 문제를 들었다. 남성 지식노동자인 위트와 여성인 콥 모두 다양한 성애의 존재에 익숙하지만, 남성인 위트가 자유롭게 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반면 콥은 자제하는 편이었다. 그녀는 이를 IBC가 송출하고 있는 지구적 문화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근대적 가치(여기서는 성에 대한 자유분방함과 다양성)의 보편성보다 젠더에 의해 재형성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위트의 자유로운 성에 대한 표현은 지구화 자체를 재현한다기 보다 타이와 영국식 엘리트즘(elitism), 타이 남성의 이성애, 방콕과 세계화의 교차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콥이 성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타이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가족, 친족의 사회적 관계의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적 현상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그녀이지만, 근대적 유형의 사랑과 성보다는 (전근대적인) 금전적 문제, 소비능력, 신분 상승을 위한 결혼을 통해 보호 등의 타이의 보편적인 기대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적 문화, 지구화가 상징하고 있는 단일한 문화, 경계 없는 세계라는 외피는 지구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공장, 지구적인 판매시장 뿐만 아니라 실제 친족, 가족 기업, 기업과 국가와의 긴밀한 협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지역적인 것이 지구적인 것과 분리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지구화 문화에 노출된 지식노동자들이 젠더에 의해 달라지는 정체성, 삶의 행태를 밝힘으로써 전지구적 문화가 성애, 인종, 젠더, 계급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윌슨은 지구적, 지역적, 근대와 전근대를 관통하는 일개인의 삶을 통해 지구적 현상과 친밀성(성애, 인종, 계급의 사회적 정체성)의 이분법이 허구적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페르난데스는 폴란 데비의 자서전⁹과 인도인 영화감독 쉐카 카푸르(Shekar Kapur)의 필름 밴디트 퀸(Bandit Queen)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서구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인도’와 ‘인도 여성’에 대한 재현의 정치를 분

9. 한국에는 『한 여성의 선택』(*I, Phoolan Devi*: 1997; 윤희숙 옮김, 1997, 등지)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폴란 데비에 대한 최초의 자서전인 말라 센(Mala Sen)의 책도 『밴디트 퀸』(*India's Bandit Queen* 1991; 김철현 옮김, 연암출판사, 1995)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석한다. “필름과 자서전이 어떻게 여성의 성에 대한 훈육, 도덕에 대한 헤게모니 형태와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있는가?” “그 텍스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통적인’ 인도 사회에 대한 서구적 고정관념을 깨뜨리는가, 혹은 재생산시키는가?” “영화감독의 재현이 폴란 데비를 강간의 피해자로 묘사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그녀를 재식민화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제기하는데, 페르난데스는 텍스트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고 있다.

폴란 데비(1963~2001)는 부유층의 재물을 약탈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산적여왕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구사회에서 제3세계 여성의 목소리와 재현은 그 진실성과 행위성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즉 여성들의 자서전, 증언, 다큐 필름 등의 생산은 제3세계 여성의 목소리와 주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타자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다. 페르난데스는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통된 데비의 자서전과 필름을 통해, 어떻게 인도 여성이 희생자 이미지로 고착되어 서구의 제1세계적 상상력을 지속시키고 있는가 하는 비판을 넘어서서, 재현의 물질성과 전지구적으로 생산되는 오리엔탈리즘의 정치적 효과뿐만 아니라 대항헤게모니와 전복의 동시성을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텍스트 모두 서구 청중만을 위한 정치적 효과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물질적 생산의 형태, 그리고 인도 내에서 그 텍스트들이 생산한 정치적 효과까지 살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주장은 초국가적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비판적 실재론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초국가적인 물질적, 역사적,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적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의 국제적 정치 경제에 대한 분석을 뜻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장 먼저 물질적 측면에서, 영화와 자서전의 문화적 형태의 내적·외적 결(texture)은 제3세계 생산과 제1세계적 소비라는 이분법 도식을 벗어나 있다고 설명한다. 텍스트들이 다국적 협동 생산 양식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데비는 글을 배우지 못했고 영어 또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자서전은 데비 자신의 구술과 타인에 의한 글쓰기로 이뤄졌고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영화 또한 영국 공영방송으로부터 자금을 충당했으나

인도인 영화감독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물질적 차원의 다국적 협동은 다시 한 번 재현의 정치에서 서구와 비서구의 차이, 권력의 초국가적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즉 인도인 여성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도 남성들은 모두 어수룩하거나 가부장적 권위를 갖지 못하는 남성상으로, 인도의 시골풍경으로 가시화되는 전통, 열등, 근대의 실패로서의 인도의 남성성이 투영되고 있다고 본다.

필름은 서구의 청중에게 인도 여성의 강간과 같은 성적 학대와 카스트 제도가 제기됨으로써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으로 읽힌다. 그런데 페르난데스는 인도 자국 내에서의 영화의 배포는 그러한 서구 상황과는 다른 모순적인 정치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희생자와 희생자가 속한 공동체의 명예의 상실을 뜻하던 강간과 같은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이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로 초점이 전환됨으로써, 부르주아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또한 젠더, 계급, 카스트 제도의 중첩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인도의 민주주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다음으로 그녀는 이들 텍스트가 폴란 데비의 일생을 다시 한 번 식민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필름은 데비의 사회적 정의감을 자신에게 성적 폭력을 가한 이들에 대한 복수로 강조하여 이를 개인화하고 있는 반면, 증언과 자서전은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카스트, 계급, 젠더간의 복잡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억압, 행위성, 저항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페르난데스는 폴란 데비의 재현이 사실인가 여부를 둘러싼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재현을 둘러싼 다양한 전략들의 권력 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름과 자서전 모두 제3세계 텍스트들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 양 세계의 물질적 협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텍스트의 재현에 나타나는 권력의 효과는 이러한 물질적 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유동성과 청중의 우연성에 주의를 둔 초국가적 해석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사실과 허구, 진실과 부분성간의 이분법적 고리를 염두에 두고 어느 한 편을 택하는 것은 권력과 재현의 문제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월슨은 방콕이라는 특정지역에서 어떻게 지구적 현상이 젠더, 인종, 계급에 의해 펼쳐지는가를 인류학적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론적인 면에서 경제의 젠더적 성격과 비경제적 요소로 일컬어지는 친밀성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경제적인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페르난데스의 글은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적 함의가 있다. 우선 억압받은 여성의 말하는 행위 자체를 저항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여성학계의 저항과 전복의 논리를 재고하게 한다. 또한 그녀는 폴란 데비의 국제적인 재현과 국내적 재현의 정치를 초국가적 물질적 상황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지식생산의 물질과 담론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있다. 월슨과 페르난데스의 연구는 각각 방콕에서 진행되는 지구적 경제화와 인도 여성에 대한 지식의 생산과 소비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과 방법 및 분석의 수위가 다르다. 그렇지만 두 연구 모두 특정 현상과 특정 사회에 대한 분석은 연구대상의 숫자와 지식생산의 권력의 장에서의 논의보다는, 어떻게 실재에 바탕을 둔, 이분법 패러다임(경제와 비경제, 지구적 경제와 사회적 정체성, 재현과 실재, 물질과 담론 등)을 탈피한 이론적 분석인가 하는 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이 글은 서구 사회과학계에서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 여성에 대한 지식생산에 개입되어 있는 권력 양태를 살핌으로써 이들에 대한 재현과 방법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의 면에서는 국가 중심적이고, 방법론의 면에서는 단순 기술에 그침으로써 제1세계 지식의 보편화에 기여하는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아시아 국가와 아시아 여성의 재현에 대한 대안적 지식생산을 고민하였다.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서구중심 패러다임의 지식생산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 그러한 지식 사유 및 생산이 어떠한 연유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가에 대한 논의들에도 많은 진전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으로서 보편과 특수를 결합하거나 로컬리티의 복원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성 학계에서도 아시아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행위성, 주체성, 협상과 같은 원자론적 자아 개념을 바탕으로 둔 저항 개념에 의문을 갖지 않고 저항과 억압의 이분법 도식 자체를 전제하고 있다(김미덕, 2011).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지식과 사유 자체의 권력적 속성, 이분법적 사유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서구 대 비서구/아시아의 이분법 패러다임의 문제점과 그 유형 및 이러한 지식·담론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로컬리티 담론은 공간의 특수성을 재확인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과 주변, 서구와 비서구의 이분법 패러다임을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지식에서도, 제3세계 여성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복원하거나 다른 한편에서 여성의 행위성과 억압에 내재된 전지구적 맥락 및 정체의 정치경제적 속성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규범적 주장과 언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자는 이를 위해서,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의 문화, 역사,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지구화가 일국 혹은 아시아라는 정체와 구성원에 따라 (재)구성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서구의 보편주의, 획일적 담론에 대한 반사적 대항담론이나 양자의 절충적 언어 결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지구지역(glocal)과 같은 절충적인 언어 결합은 늘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바꾸지 않은 기계적인 결합으로서 사회현상의 복잡함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구체성과 담론의 물질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 사실주의 분석은 아래로부터의 물질적·문화적 지구화를 실천하는 아시아인의 다층적 면모, 즉 정치경제 제도의 한 축과 행위자들의 여러 정체성과 행위양식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일. 1996. 「전후 미국에서 지역연구의 성립과 발전」. 『지역연구』. 제5권 3호 pp. 223-266.
- 김미덕. 2011. 「정치학과 젠더」.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2호(출판 예정).
-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 플란 데이 외. 홍현숙 역. 1997. 『한 여자의 선택』. 서울: 동지.
- 로이 바스카. 이기홍 역. 2007. 『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 서울: 후마니타스.
- 박규택. 2009.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pp. 107-143.
- 백영서. 2009. 「지구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의 (불)가능성」. 『동방학지』. 제147권 pp. 1-25.
- 말라 센. 김철현 역. 1995. 『밴디트 퀸』. 서울: 연암출판사.
- 이상화. 2007.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상화 외 편.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 31-56.
- 이성형 외. 2005. 「지역연구」. 김세균 외 편. 『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서울: 박영사. pp. 469-494.
- 임마뉴엘 월러스틴. 정연복 역. 2001. 「의도하지 않은 결과」. 『냉전과 대학』. 서울: 당대. pp. 130-164.
- 정세룡. 2009. 「젠더와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pp. 181-221.
- 조명래. 2000. 「지역정치경제연구의 이론적 동향과 쟁점」. 『공간과 사회』. 제14호 pp. 156-185.
- Appadurai, Arjun. 2000. "Grassroots Globalization and the Research Imagination." *Public Culture* 12(1). pp. 1-19.
- Chakrabarty, Dipesh. 2000. *Provincializing Europe*. Princeton and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ong, Terence. 2007. "Practicing Global Ethnography in Southeast Asia." *Asian Studies Review* 31. pp. 211-225.
- Crenshaw, Kimberle. 1994. "Mapping the Margins." In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the Discovery of Domestic Abuse*. NY: Routledge. pp. 93-118.
- Dekoven, Marianne. eds. 2001. "Introduction." In *Feminist Locations*. NJ: Rutgers University. pp. 1-12.
- Engebretsen, Elisabeth Lund. 2007. "The Intimate Economics of Bangkok." *Feminist Review* 85. pp. 151-153.
- Escobar, Arturo. 2003. "Place, Nature and Culture in Discourse of Globalization." In *Localizing Knowledge in a Globalizing World*.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pp. 37-59.

- Fernandes, Leela. 1999. "Reading India's Bandit Queen." *Signs* 25(1). pp. 123-152.
- Fernandes, Leela. 2010. "The Violence of Forgetting." *Critical Asian Studies* 45(2). pp. 265-272.
- Friedman, Susan Stanford. 2001. "Locational Feminism." In *Feminist Locations*. NJ: Rutgers University. pp. 13-36.
- Gibson-Graham, J.K. 2003. "An Ethics of the Local." *Rethinking Marxism* 15(1). pp. 49-72.
- Grewal, Inderpal and Caren Kaplan. 1994. "Introduction." In *Scattered Hegemon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1-36.
- Grewal, Inderpal and Caren Kaplan. 2001. "Global Identities." *GLQ: A Journal of Lesbian and Gay Studies* 7(4). pp. 663-679.
- Hall, Peter A and Tarrow, Sidney. "Globalization and Area Studies."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January 23, 1998.
- Haraway, Donna. 1988. "Situated Knowledge." *Feminist Studies* 14. pp. 575-599.
- Kaplan, Caren. 1994. "The Politics of Location as Transnational Feminist Critical Practice." In *Scattered Hegemonie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137-152.
- Katzenstein, Peter J. 2001. "Area and Regional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4(2). pp. 789-791.
- Khagram, Sanjeev and Peggy Levitt. 2008. *The Transnational Reader*. NY: Routledge.
- King, Victor T. 2005. *Defining Southeast Asia and the Crisis in Area Studies*. Lund University(Sweden).
- Kolluoglu-kirli, Biray. 2004. "From Orientalism to Area Studies." *The New Centennial Review* 3(3). pp. 93-111.
- Lorenz-Meyer, Dagmar. 2004. "Addressing the Politics of Location." In *Women Scholars and Institution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Prague, June 8-11, 2003). pp. 783-805.
- Ludden, David. 2000. "Area Stud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Frontiers* 6(1). pp. 1-22.
- Massy, Doreen. 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cEwan, Cheryl. 2003. "Material Geographies and Postcolonialism."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4(3). pp. 340-355.
- Mendoza, Breny. 2002. "Transnational Feminisms in Question." *Feminist Theory* 3(3). pp. 295-315.
- Mirsepassi, Ali. et al. eds. 2003. *Localizing Knowledge in a Globalizing World: Recasting the Area Studies Debate*.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Mitchell, Timothy. 2003. "Deterritorialization and the Crisis of Social Science." In *Localizing Knowledge in a Globalizing Worl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pp. 148-170.

- Nagar, Richa and Amanda Lock Swarr. 2009. *Critical Transnational Feminist Praxi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Mohanty, Chandra Talpade, et al., eds. 1991. *Third World Women and the Politics of Feminism*.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Mohanty, Chandra Talpade. 1987. "Feminist Encounters." *Copyright* 1(31). pp. 30-44.
- Mohanty, Chandra Talpade. 1988. "Under Western Eyes." *Feminist Review* 30. pp. 61-88.
- Rudolph, Susanne Hoeber. 2005(a). "The Imperialism of Categories." *Presidential Address of Annu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3(1), pp. 5-14.
- Rudolph, Susanne Hoeber. 2005(b). "Perestroika and Its Other." In *Perestroik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p. 12-20.
- Shohat, Ella. 2001. "Area Studies, Transnationalism, and the Feminist Production of Knowledge." *Signs* 26(4). pp. 1269-1272.
- Sil, Rudra. 2009. "Area Studies,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Role of Cross-Regional Small-N Comparison." *Qualitative and Multi-Method Research*. pp. 26-32.
- Spivak, Gayatri Chakravorty.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zanton, David L. 2004. "Introduction." In *The politics of knowledge: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p. 1-33.
- Wilson, Ara. 2004. *The Intimate Economies of Bangkok*.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composition of Knowledge on Regional Studie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bate on Methodology

Miduk Kim

Ewha Womans University

As the debate on globalization that began in the 1990s accelerates, the issue of Asian regional studies and the understanding of region as a space have (re)emerged. The new debate has observed two different trends. One is the declining number of country-specific researches that describe the particularities of that country. The other is the emphasis on production of new knowledge that is based on locality. Within a feminist academic community, problems of representation of Asian women as passive victims have been identified. In response, there have been an array of new research that shed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locality, indigeneity and space. This study explores the representation of Asian countries and Asian women in the debate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 studies. This paper questions the essentialist tendency of regional studies against universalist globalization discourse and the dichotomous paradigm between western and non western, locality and globalization identified in the essentialist tendency. As a way of overcoming such tendencies, this study suggests a realistic analysis, which emphasizes specificity and actuality and questions the dichotomous paradigm. Through this suggestion, this study shows that regional study is an endeavor that explores the multiple facets (politic-economic agencies) of the Asian people practicing both material and cultural globalization from the below.

Key Words: Regional Studies, Globalization, Asian Women, Realistic Analysis